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4년 4월 26일(금)

...(음력 3월 18일)...

Пятница

26 апреля 2024 г.

№ 16 (12083)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4월 28일은 종려주일(사순절)이다.

(이예식 기자 촬영)

단신

사할린주에서 <계오르기 리본> 행사 시작

4월 24일부터 5월 9일까지 <계오르기 리본> 전 러시아 행사가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 진행됐다. '승리의 자원봉사'운동의 자원봉사자들과 '알파-위스토크' 사할린 지역 청소년 활동의 학생들, '윤아르미야' 전국 청소년 사회활동의 학생들이 승리의 날을 맞아 가장 중요한 상징 중 하나 - '계오르기 리본'을 지나는 행인들에게 배포했다.

사할린 지역에서 펼쳐지는 전국 활동은 중심 거리와 마을 중심지, 철도역 부근, 공원에서 진행된다.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은 군사적 영광의 상징인 '계오르기 리본'을 받게 되며, 주에서 3만 개 이상의 리본을 배포할 예정이다.

사할린 '고르니 워즈두흐', 국내 우수 산악스키장으로 선정

2014년부터 전 러시아 우수 스포츠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연으로서 <2024 스포츠 사업설계>가 7회째 진행되어 모스크바에서 우승자와 수상자들에게 상을 수여하는 시상식이 거행된 가운데 사할린의 '고르니 워즈두흐' 스키단지가 2024년 국내 우수 산악스키장으로 선정되었다.

'고르니 워즈두흐' 스포츠 및 관광단지의 운영진은 모든 방문객들, 협력자들, 직원들에게 그들의 성공의 핵심요소가 되었던 지지에 감사를 표하며 텔레그램을 통해 수상에 대한 기쁨과 자부심을 공유했다.

'고르니 워즈두흐'의 직원들은 이번 받은 영예의 상을 향후 최고의 수준에서 일하기 위한 새로운 촉진제로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안나 오스키나, 쿠릴스크 지역 시장으로 선출

쿠릴스크 지역 시장에 안나 오스키나가 지역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오스키나는 시장 대행을 역임, 쿠릴스크시 행정부 제1부국장을 지냈다. 쿠릴스크 지역 검찰청 수사관, 치안판사, 쿠릴스크 지역 법원장 역임했다. 그의 공무원 업무 경험은 19년 이상이다.

지난 몇 년간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동료들에게는 존경을 받는 인물이다.

이번 주 6일 근무

4월 말에 러시아 국민은 주 6일 근무를 하게 된다고 러시아 노동청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했다. 4월 22일(월)부터 27(토)까지 주 6일 근무를 한다.라고 노동청이 밝혔다. 이후 4일간을 휴일로 결정하고, 4월과 5월에 걸쳐 러시아 국민은 4월 28일(일)부터 5월 1일(수)까지, 5월 9일(목)부터 12일(일)까지 휴일로 지치게 된다. 5월 1일은 봄과 노동의 날, 5월 9일은 전승절을 기념한다.

친애하는 사할린 주민 여러분!

4월 26일은 우리가 사할린주 깃발의 날로 기념합니다.

기념일을 맞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할린 주민들에게 있어 사할린과 쿠릴열도 문양의 비취새 기는 러시아 연방 행정자치지역의 공식적 상징일 뿐만 아니라 우리 향토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러시아를 위해 땅을 개척하고, 전투에서 향토를 위해 피를 흘린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기도 합니다. 선조들은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 튼튼하고, 넉넉한 집을 건설하듯이 사할린주를 형성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앞선 세대들이 시작한 일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동의 노력으로 교통 제반시설을 개선하고, 마을과 도시를 번오시키며, 문화와 보건 분야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과학과 선도기업들 간에 협력을 구축하고 있고, 우리의 청년들이 성공에 도달하고, 생활 속에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도 더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할린주에는 새로운 성과들이 더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모든 과제들을 해결해 갑시다. 부단히 앞을 향해 전진하여 정상에 올라 그 위에 우리의 깃발을 꽂고 휘날리도록 합시다.

사할린 동포 여러분, 사할린주 깃발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지사



올해 북극항로를 통해 사할린주로 화물 운송 시작

사할린주의 건설산업, 공공주택사업, 농업 및 기타 생활 주요 분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화물이 대체항로로 사할린주에 공급된다. 북극항로에 따른 화물운송은 더 빠르고, 더 경제적이다.

새로운 물류 방향의 개발문제가 투자사업에 따른 투자위원회 회의에서 제기되었다. 올해부터 코르사코브 항구는 북극항로에 따른 첫 보조금을 받는 연안무역 운항 노선에 포함되었다. 아르한겔스크에서 극동지역으로 가는 시범 운항은 7월 - 8월에 계획되어 있고, 코르사코브에 기항은 8월 10일로 예상된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북극항로는 현재 가장 이익이 되는 해안무역 통로이다. 무엇보다 연방 중앙으로부터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진행된다. 만약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가동된다면 이는 사할린주로서는 강력한 비장의 무기가 될 것이다. 올해 첫걸음을 떼게 되는 북극항로는 석유, 가스 기획개발을 위해 이용될 수 있으며, 이들의 업무와 관리를 위해 몇 배나 많은 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된다. 대체항로에 따른 물류 운송에 관심을 갖는 기업들에게는 모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사할린 지역으로 화물운송의 주요 통로는 철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모스크바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 본선까지 다음은 선박편으로 전환돼 와니노 - 홈스크 또는 블라디보스토크 - 코르사코브 항로로 화물이 운송되고 있다. 공급까지는 48일이 소요된다.

사할린주 도로교통산업부 막심 조골레브 장관은 "북극항로에 따른 해상 노선은 거리가 더 멀지만 화물운송에서는 훨씬 더 빨라 28일이 걸린다. 경제적인 요소도 중요하다. 북극 항로로 하나의 컨테이너 운송은 예전 경로보다 몇 배나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대체항로의 시범 운항은 연방예산에서 보조금을 받게 되며, 현재 화물기지가 조성되어 이 사업에 사할린 기업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사할린주 정부는 물류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기업들의 이익제기는 극동 및 북극개발부와 공동으로 러시아 철도산업 및 운송회사들이 개별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 올해 사할린 지역으로 화물운송에 따른 550개 이상의 문제들이 긍정적으로 해결되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북극항로를 극동지역개발을 위한 핵심이라 일컬으며, 현재 글로벌한 근본적 주요 교통로로서 조성하도록 과제를 내세웠다. 2025년에는 북극항로를 이용한 화물운송이 10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고려신문

2024년 하반기 신문 구독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4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이 시작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인 만큼 우리에게 각 독자가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46,98루블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주명수 화백, 75세 새로운 도전, 새 작품 전시회 열어

러시아 미술아카데미의 명예회원이며 '러시아 명예 화가' 호칭 수여자인 주명수 화백이 2023년 12월에 75회 생신을 맞이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금) 사할린주 미술박물관 소속 '마야크'미술관에서 주명수 화백의 개인 미술전이 열렸다. 이날 전시 개막식에 사할린주 문화부 논라브리크 장관이 참석해 직접 축하인사를 전했다.

탄생 75주년을 맞은 미술 대가의 개인전으로서 많은 기대를 하게 되었다. 이번 전시회에서 주 화백은 최근 2년간 새로 그린 작품 50여 점을 소개했다.

"사실 이번 개인전을 위해 작품 300개를 준비했어요. 잘 아시잖아요, 제가 빨리 많이 그릴 수 있다는 걸... 물론 모든 작품이 전시관에 다 못 들어갔죠."라고 주명수 화백이 웃으면서 말했다.

신문사와 한 번 인터뷰를 했을 때 그는 "저는 때로는 그림을 그릴 때 누군가 제 손을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림이 나오더라고요."라고 말할 적이 있었다.

최근 작품 숫자만 들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 화백의 이번 개인전은 '집중의 포커스'라는 제목 아래 진행된다. 그는 이번에 4가지 시리즈를 소개했다.

하나는 사진을 위주로 하고, 컴퓨터로 작업하는 작품이다. 주로 두 사진으로 한 작품을 만들었다. 이 흑백 시리즈는 '사할린 소수민족

원주민 지역을 찾아라는 테마로 이어졌다. 주로 남부사할린에서 활동한 주명수 화백은 처음 2020년에 원주민 소수민족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포로나이스크, 노글리키, 네크라슈카를 찾아 찍은 사진들이라고 한다. 사진들은 뭔가 신비로운 느낌을 주고 있었다.

또 다른 시리즈는 '고향 코르사코브 시에 바치는 그림'이다. 그는 코르사코브에서 태어났고 이곳에서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을 보냈다. 최근에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또다시 도시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다.

2022년에 그는 다른 화가들과 함께 '사할린 에너지'회사의 주선으로 프리고로드노예 액화천연가스공장을 찾아 야외 산업 그림 그리기에 참여했다. 화백은 그때 받은 감동으로 프리고로드노예에 대해 길게 얘기하였다. 작품에 공장은 자연과 잘 어우러져 있다. 이 시리즈는 아크릴 물감으로 그려졌다. 산업 풍경이 볼 만하다.

그리고 출품된 작품 중 가장 추상적인 그림은 '변환의 공식'시리즈의 작품들이다. 사할린의 북방 지방에 있는 필톤-아스토호스조에 석유가스응축수 유전지와 룬스코예 가스응축수 유전지를 처음 다녀간 주 화가는 정말로 큰 인상을 받고 상상력을 작동시켰다. 이 시리즈는 컴퓨터 선화 방식으로 그려졌다. 컴퓨터로 드로잉 하는 것이 재미있다고 한다. 이 시리즈 경우에는 필톤 유전지는 주로 검은 색깔로, 룬스코예 유전지는 하늘색이 많이 들어간 느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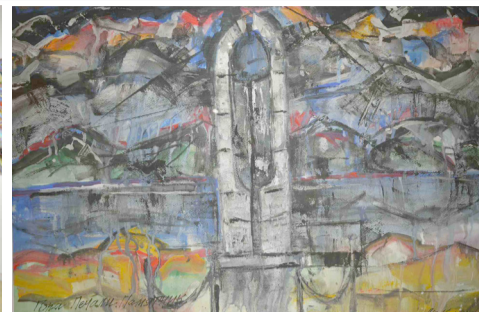
다. 알고 보니, 필톤-아스토호스조에 유전지에는 주로 석유를 채취하고, 룬스코예는 가스유전지라 하늘색이 어울린 것 같다.

주 화가는 무엇보다 가스와 석유가 미래에는 어떤 방식으로 공급될 것인지 고민하며 작품을 그리는 것이다. 그는 실제로 이걸 많이 궁금해 하고 있다.

"어렸을 때 저는 화가 될거라는 꿈을 꾸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학, 물리학이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그때 이학 관련 전공을 할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9학년 때 물리학 선생과 크게 다투다가 학교를 그만 두었죠. 나중에 한 학기 시험을 보고 학교 돌아왔어요."라고 주 화백이 이야기했다.

학교 졸업한 지가 약 57년이 지나도 물리학, 그리고 연구에 대한 생각은 아직 살아 남아 있는 것 같다. 아무튼 주명수 화백은 감동과 영감이 있어야 작품이 '탄생'한다고 한다.

그는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고 싶어하



고, 새로운 기술도 익히고, 새로운 작품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 대가의 창의력을 항상 발전시키는 동력은 이렇게 쉽다.

그의 작품들은 작가의 새로운 창의적 지평과 깊은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사할린동포 2세인 주명수 화백의 작품들은 러시아 여러 미술관은 물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아일랜드, 한국, 미국 등에서 전시되었다. 이번 전시는 5월 23일까지 진행.

(취재: 글/배순신 기자, 사진/이예식 기자)

이 모 저 모

유즈노쿠릴스크, <러시아 미지의 여행코스>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에서 소개

4월 21일(일) '쿨투라(문화)' 티비 방송에서 <러시아 미지의 여행코스> 프로그램의 새 방송을 방영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촬영팀이 유즈노쿠릴스크로 떠났다고 사할린주 관광부가 전했다.

<러시아 미지의 여행코스>프로그램의 새 회에서 유즈노쿠릴스크에서 여행이 시작된다. 이 기획의 진행자는 쿠릴열도에서 여행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며, 아름답고도 독특한 지역 명소를 찾아내고, 가장 비싼 레스토랑에서도 이처럼 맛있는 것을 제공하지 못하는 쿠릴스크의 부페르브로드(샌드위치)를 맛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우리 쿠릴열도로 떠나자! 그렇다. 멀다. 이곳으로 가기까지는 몇 가지 교통편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믿어라: 그럴 가치가 있다."며 첫인상을 전했다.

Южно-Курильск показали в новом выпуске телепередачи «Неизвестные маршруты России»

В воскресенье, 21 апреля, в эфире телеканала «Культура» вышел новый выпуск телепередачи «Неизвестные маршруты России». На этот раз съёмочная группа отправилась в Южно-Курильск.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истерства туризм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новом выпуске программы «Неизвестные маршруты России» путешествие начинается в Южно-Курильске. Ведущий проекта рассказал, что ждет гостей на Курилах, раскрыл красоту и уникальность местных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ей, а также отведать бутерброд по-курильски – подобный деликатес не предложат даже в самом дорогом ресторане.

«Мы отправляемся на Курилы! Да, это далеко – и добираться туда придется на нескольких видах транспорта... Но поверьте: оно того стоит», – поделились первыми впечатлениями авторы программы.

<2024 도서관의 밤> 사할린주 아동도서관에서 진행

사할린주 아동도서관이 <2024 도서관의 밤> 전국 행사를 활기차고, 유익하게 진행했다고 전해졌다. 이날 방문객들이 각층에 가득 찬 가운데 독서실에서는 섬씨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 아동들에게 설명하는 <자기 가족나무 키우기> 활동 교실이 진행되었다.

사할린의 7세 이하의 독자들을 위해 교실에서는 가족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가지고 <즐거운 북> 퀴즈대회를 열어 어린이들이 문제에 답을 맞혔다.

7세-11세의 어린 독자들을 위해서는 <생활 속으로> 즐거운 보드게임이 교실에서 진행됐다. 모든 가족 참가자들은 가족의 유쾌한 사건들, 예상치 못한 전환으로 생기돋는 인생의 행로를 따라 즐거운 여행을 떠났다.

강당에서는 <도적이 어떻게 이발하러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연극이 상연됐는데 이 이야기는 어린이들과 성인들도 좋아했다. 사할린주 식물원 교육프로그램 향토학 교사 스웨틀라나 화티호와는 식물의 비밀들에 대해 흥미진진하게 이야기 해주었다. <2024 도서관의 밤>은 22시에 종료되었다.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етской библиотеке прошла «Библионочь - 2024»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етской библиотеке ярко и насыщенно прошли мероприятия всероссийской акции «Библионочь-2024».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учреждения.

В этот день посетители заполнили все этажи. В читальном зале проходил мастер-класс «Вырасти свое семейное дерево», на котором ребятам рассказали об истории происхождения родов. В зале для читателей до 7 лет юные сахалинцы отвечали на вопросы викторины «Весёлый барабан» по произведениям на тему семьи.

В зале для читателей от 7 до 11 лет прошла веселая настольная игра «В жизнь». Участники всей семьей отправились в захватывающее путешествие по жизненной тропе с ее приятными событиями и неожиданными поворотами.

В актовом зале состоялся спектакль «История о том, как Дождик стричься ходил». История понравилась как детям, так и их родителям. В зале краеведения педагог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 Сахалинского ботанического сада Светлана Фатыхова увлекательно рассказала про тайны растений.

«Библионочь-2024» завершилась в 22:00.

레슬링 올림픽 2관왕, 사할린에서 활동교실 진행

레슬링 그레코-로만 종목의 올림픽 2관왕인 로만 블라소브 선수가 사할린의 아마추어 선수들을 위한 활동교실을 열었다고 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올림픽대회 2관왕, 세계선수권대회 3관왕, 유럽 선수권대회에서 4관왕을 보유한 로만 블라소브가 자신의 성공적인 기술을 공유하고자 했다. 활동교실에는 사할린 스포츠학교 학생들과 교사 및 학부모들 80명 이

상이 참여했다.

"너무 감격적이다. 선수들 및 어린 스포츠인들과 나의 기술을 공유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내가 있음으로 해서 여기에 한 사람에게라도 신뢰를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큰 승리다."라고 로만 블라소브가 말했다.

활동교실에서는 전통적으로 준비운동을 시작하고, 주요 부분 진행 중 그는 국제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던 자신의 최고 기술을 선보였다. 많은 선수들이 자신들의 모범인 챔피언과 힘을 겨루며, 개별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다.

노글리키 마을 스포츠학교의 학생인 박 콘스탄틴은 "나는 자유형 레슬링을 배우고 있지만 그레코-로만 레슬링을 해보고 싶다. 로만 안드레예비치는 세계적으로 다른 선수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레슬링 활동교실에 나도 참여할 수 있어서 무척 기뻐다. 이러한 만남은 큰 동기부여가 된다."고 소감을 말했다.

Двукратный олимпийский чемпион провел мастер-класс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Двукратный олимпийский чемпион по греко-римской борьбе Роман Власов провел мастер-класс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любителей спорт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мин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вукратный олимпийский чемпион, трехкратный чемпион мира, четырехкратный чемпион Европы поделился своими секретами успеха.

Переняли мастерство больше 80 воспитанников островных спортивных школ, их тренеры и родители. «Получаю невероятные эмоции. Я счастлив сегодня делится с юными спортсменами своими секретами, наработками. Буду рад, если моё появление здесь подарит веру в себя хотя бы одному человеку – это уже будет большая победа», – поделился Роман Власов.

Встреча стартовала по традиции с разминки. В процессе основной части мастер-класса олимпийский чемпион показывал и свои коронные приемы,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ым он завоевывал золотые медали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У многих спортсменов была возможность лично проверить свои силы и побороться с именитым чемпионом,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для них примером.

«Я занимаюсь вольной борьбой, но хочу попробовать себя в греко-римской. А Роман Андреевич обладает лучшей техникой среди других борцов мира. Я был счастлив, когда узнал, что попаду на его мастер-класс. Очень сильно мотивируют такие встречи»,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воспитанник ДЮСШ поселка Ноглики Константин Пак.

(8면에 계속)

유즈노사할린스크, 태권도 축제 개최

지난 4월 20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주한인협회, "토르나도"스포츠 클럽 주최로 열린 태권도 축제가 진행되었다. 이 축제는 <세대 간 연결, 전통의 이어줌> 사회적 기획의 일환으로 사할린 주정부 지원으로 개최되었다.

경기 시작에 앞서 이날 축제 참가자들에게 사할린 주정부 공공 커뮤니케이션 부서장 예고르 욘노브,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부시장 드미트리 하이브리예브, '토르나도'스포츠 클럽 회장 리 파벨, 그리고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이 환영했다고 '코레이스키 텔레그라프'가 텔레그램을 통해 전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 6세부터 17세 까지 선수 3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코르사코브, 아니와, 돌린스크, 홉스크, 네레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대표해 출전했다. 이번 축제에는 멋진 품새 시합과 시범 공연이 펼쳐져 승부를 다투었다. 참가자들은 최선을 다해 기술의 숙달, 유연성 및 힘을 보여주었다. 이날 총 14팀이 품새에서 경쟁을 치르며 1위는 코르사코브 팀, 2, 3 위는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동양 김나지아 팀과 제1중학교 팀이 차지했다.

(본사 기자)



사할린 사람의 마음을 노래한다

지난 4월 19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 가가린 호텔 대회의실에서 싱어송라이터 김 웨니아민과의 만남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새고려신문사가 주최한 <사할린 만남: 삶, 창작, 마음에 대해> 기획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현재 사할린주 필하모니의 아티스트로 활동하게 된 김 웨니아민은 20여 년 전부터 아마추어 음유시인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러시아, 극동, 사할린 바르드 축제 등에 참가하여 수상하고, 10년 전에 아포스트로브 싱어송라이터 축제를 새로 만들어 조직위원장을 맡으며 해마다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날 만남에서 창작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며, 기타 연주와 함께 많은 노래를 불렀다. 활동 초기에 쓴 노래와 최근에 만든 노래로 행사를 찾아온 사람들의 마음은 노래의 음률에 젖어들었다. 특히 사할린에 대한 노래들은 많은 공감을 일으켰다. 모임 참석자들은 김 웨니아민에게 많은 질문을 했다.

그는 "요즘 '사할린 시민의 마음' 앨범을 녹음하는 중"이라고 하여 관객들은 웨니아민이 디스크를 소개하는 행사에도 불러달라고 했다.

계획한 만남의 시간이 지나도 노래와 이야기에 빠진 참석자들은 집으로 돌아갈 시간도 있었다.

따뜻한 분위기 아래 진행된 '사할린 만남' 기획은 계속 된다. 다음 만남은 이미 이번 금요일, 4월 26일, 오후 6시 가가린호텔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창의력이 많은 키오 야나 미술가와 만날 것이다. 입장은 자유다.

(본사 기자)



불멸의 연대, 2024년 5월 1일부터 9일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러시아 불멸의 연대> 전국 사회적 국민-애국운동 중앙본부가 공공의 안전위협과 관련해 직접 참가하는 방식으로 <불멸의 연대> 전통적인 행진을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5월 9일만 아니라 5월 1일부터 전승절까진 주민들은 다른 방식으로 각 가정의 영웅들을 기리게 된다.

러시아 불멸의 연대 중앙본부의 공동전권 대표이자 러시아 연방 국가두마 의원인 엘레나 쭈냐예와는 "조국 수호에 대한 기억이 항상 우리 마음에 살아있는 전승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전 국민의 명절로서 모든 가족이 이날을 기다린다. 2024년은 <가정의 해>로 공포되었다. 공동의 국가적, 역사적 기억 전체를 형성하는 전 국민의 추모인 만큼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행사에 가정들이 참여할 거라고 본다. 이번에 전통적 행진이 없다는 소식에 실망감도 있을 수 있지만 국가가 여러 어려움을 넘기고, 이런 제한 속에서도 전승절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것은 막지 못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엘레나 쭈냐예와는 <불멸의 연대> 올해 행사는 직장이나 대중교통이나 서비스 교통편에서, 수상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며 가족의 영웅을 기릴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을 설명했다. 그 형식들 중 <추모의 갤러리>에서는 러시아 도시들의 중심 거리와 광장에 소련 영웅들과 지역 출신 특수군사작전 참전자들의 사진들이 전시된다.

<불멸의 행진>의 새로운 형식은 해외에서도 전통적 행진과 함께 진행되며, 현재 전 대륙에 49개국의 78개 도시들에서 기념행사 개최가 확인되었다고 엘레나 쭈냐예와가 전하고, 현재 우리가 과거의 영웅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특수군사작전 지역에서 조국을 수호하고 있는 지금의 영웅들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전선의 불멸의 연대>는 올해 새로운 형식 중 하나로서 특수군사작전의 참전자들이 대조국전쟁시절 나치즘에 맞서 전투를 치렀던 장병들과 자신의 친지들을 기억하며, 자신의 부모들과 자녀들과 형제자매들에게 승리를 믿고, 그들이 돌아오길 기다려 달라는 것을 영상편지로 담아 전달할 예정이다.

러시아 연방 교육부 세르게이 크라브쭈브 장관의 주장으로는 전국 모든 가정들은 그동안 참전용사들에 대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며 부모들은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보전되고 있는 가족의 역사에 대해 자녀들에게 알려주며, 관심을 갖게 하고, 전 교육기관에서는 교육과정에서도 그 중요성을 빼먹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매 학기가 시작되는 주간에는 학교에서 국가를 부르며 러시아 연방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올해는 명절 행사를 맞아 모두가 승리의 상징적 표본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교육기관들에서는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학교 <추모의 벽> 행사를 진행하여 이 기간에 학생들이 우리 영웅들의 공적에 대해 동급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 학교들에서 <추모의 벽>은 학기말까지 이어진다.

<불멸의 연대> 집행위원회 위원장인 나탈리아 샤드리나는 새로운 형식들 중에 지난해 요청했던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전승절에만 이런 유사한 행사를 진행하지 않기를 요청했다.

나탈리아 샤드리나 위원장은 "5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불멸의 연대>는 누구나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장 선호되는 것 중 하나는 <영웅의 초상을 옷에 새기기>이다. 이것은 누구나 만들 수 있으며, 지난해부터 티셔츠를 만드는 새로운 전통이 생겨 이 티셔츠를 입고 온 가족이 산책에 나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진을 좀더 곱게 꾸미려면 폴크르프.ру(polkrf.ru) 사이트로 들어가 도구들을 이용해 사진의 배경, 영웅의 정보 삽입, 참전용사가 최전선 또는 후방전 선인지, 의용군인지를 표시하며 사진을 재구성할 수 있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와 메신저에서 참전용사에 대한 역사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영웅과 관련된 사진이나 가족 유물이 있을 것이다. <러시아 불멸의 연대> 공식사이트에는 보통 가족이 보존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게시되어 있다. 이런 글을 읽을 때 우리 국민과 우리의 승리에 대한 자부심이 생긴다. 여러분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역사를 알고 있다면 공유하라. 이는 독특한 이야기이니 여러분이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영웅을 보여주라."고 말했다.

또한 별도로 디지털 형식으로 유지되어 전승절에 모든 소셜 네트워크 이용자들이 대조국전쟁 참전용사 및 후방전선 참전자, 특수군사작전 참전자들의 사진을 자신의 아바타로 교체하고, '헤시태그#나슈베스스메르티폴크'와 함께 자신의 영웅에 대한 게시물을 쓰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외에도 모든 이용자들은 러시아 불멸의 연대 사이트에서 사진으로 스탠드를 만드는 방법도 얘기했다. 나탈리아 샤드리나는 전승절에 전국에서 참전용사들의 사진이 실시간 방송으로 나간다고 전했다. 주요 방송은 러시아 불멸의 연대(polkrf.ru) 공식 사이트에서 전해지며, 소셜네트워크 운동 홈페이지에서도 송출된다. 대조국전쟁 참전자 사진 영상은 인터넷과 지역 방송, 도심 전광판과 벽면 미디어에서도 볼 수 있다. 또한 <불멸의 연대>는 개인 차량에, 오토바이 등 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영웅의 사진을 운전대 방해되지 않도록 차량의 뒷유리나 윈편으로 붙여 나타낼 수도 있다.

또한 추가적 방법으로 올해는 챗봇(chabot)을 통해 가족 영웅의 사진을 만들 수 있다고 <승리의 자원봉사> 전국사회운동 실장인 아나스타시야 라보와가 언급하며 "5월 1일 <승리의 자원봉사> 텔레그램 특별 챗봇에서 소셜 네트워크용 추모 아바타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다시 한 번 정보 공간에서 단결된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역사적 기억과 우리 영웅들에 대한 자부심을 부각시킬 것이다. 이 기능은 또한 액자 특별제작, 축하엽서로서 사진 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최대한 이런 옵션을 활용해 우리는 우리의 주제 활동과 러시아 불멸의 연대 사이트에서 얘기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추모의 벽> 행사도 유지되어 자원봉사자들의 주최로 5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국 기업들과 기관들의 근로 공간에 수집되어 만들어진 <추모의 벽>에 모든 러시아 국민은 자신의 참전용사의 사진을 게시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여기에 기업 직원의 친인척, 직원으로서 참전한 사람들과 그의 동료들이 <추모의 벽> 전국 행사에 참가자가 된다.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단체에서, 기업에서, 공공장소에서, 교통편에서 <불멸의 연대> 행사의 모든 자료 배치와 지역을 위한 문의사항은 <https://disk.yandex.ru/d/q7gmvpkXev8CtQ>에서 알아볼 수 있고, 올해 자신의 영웅을 추모에 대한 전체 정보는 불멸의 연대 공식 홈페이지 (<https://polkrf.ru>)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 기념

2024 우리말 및 러시아어 문예콩쿠르 공모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와 관련해 새고려신문사는 문학콩쿠르(글짓기)를 개최합니다.

• **공모주제:** <우리 가족>, 그리고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글.

한국어 본문 주제는 아무 제한이 없으나 러시아어로는 <우리 가족>,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통, 풍습, 사할린 한인 역사에 관련 글만 받습니다. 특히 올해 러시아에서 '가정의 해'를 기념하는 만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바랍니다.

• **공모기간:** 2024년 5월 중순까지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시상식에 대한 정보는 차후 알려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문은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vika131065@gmail.com 으로 보내주시고 반드시 이름, 나이, 직업, 연락처 등을 적어주시고.

문의전화: 8(4242)43-59-80, 43-72-94.

콩쿠르조직위원회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 честь 75-летия газеты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аботы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могут быть любого содержания. Эссе на русском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темами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том числе история семь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озрасту для участия нет.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в редакции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указать обязательно).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арианте работы присылать по следующим адресам: vika131065@mail.ru, vika131065@gmail.com.

Указать фамилию, имя, возраст, профессию, место учебы (для учащихся), контактны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8(4242)43-59-80, 43-67-85.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середины мая 2024 г.

Учащимс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будет выдан Сертификат участника.

Информация о награждении будет опубликована позже.

Оргкомитет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С душой о Сахалине, или о чем поет сердце сахалинца

В пятницу, 19 апреля, в конференц-зале гостиницы «Гагарин»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с автором-исполнителем Вениамином Ким. Она прошла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Встречи на Сахалине: о жизни, творчестве и душе», организатором которого являетс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и поддержке ГК «Гагарин».

Совсем недавно Вениамин стал артист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филармонии. По профессии зубной техник и управленец по образованию, но автор песен, поэт и бард по призванию стал заниматьс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 тем, что ему нравится. Ким Вениамин является лауреатом и дипломантом сахалинских 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фестивалей бардовской песни, а также лауреатом интернет-конкурса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имени В. Грушина.

А совсем недавно он стал лауреатом в конкурсе авторской песни, прошедшего в рамках I Открытого слета бардовского движения «Чтобы наши песни пели, как свои»,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л в Москве.

Вениамин поделился, как начался его путь в авторской песне, про участие в бардовских фестивалях, что для него очень важен текст песни, хотя и музыка немаловажна.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 было услышать, что для Вениамина малая родина. Это не «березки и рябины», а то, что в душе, отношение... Естественно, в этот вечер звучали песни под гитару. Было очень душевно. Вениамин исполнил как старые песни, так и новые, которые должны войти в готовящийся к выпуску новый альбом,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 из двух дисков под названием «Сердце сахалинца» и будет посвящен его близкому другу, долгое время сподвигавшего Вениамина на запись диска. По словам Вениамина, только на тему Сахалина будет записано 9 песен.

Еще одним детищем, которым Ким Вениамин гордится, является фестиваль авторской песни АПОстров.

Пришедшие на встречу сахалинцы задавали Вениамину множество различных вопросов о творчестве, вдохновении, интересовались планами на будущее, хотели общаться, слушать самобытные авторские песни и не торопились расходиться.

«Встречи на Сахалине» всегда проходят по-семейному тепло. И уже в эту пятницу, 26 апреля, в 18.00 в гостинице «Гагарин» состоится очередная встреча с интересной и неординарной личностью - художницей Яной Кио.

Дарья ВОРОБЬЕВА, студентка СахГ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ел открытый фестиваль по тхэквондо

20 апреля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стоялся Открытый фестиваль по тхэквондо,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которого стали спортивный клуб «Торнадо» и РООСК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Фестиваль прошел в рамках соци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И поколений связь, и нить традиций».

Как сообщает Телеграмм-канал Корейский Телеграф,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м словом выступили начальник управления общественн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гор Умнов, вице-мэр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митрий Хайбриев, президент ЮСМСОО «Клуб Торнадо» Павел Ри и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Как сообщили редакции организаторы,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320 спортсменов в возрасте 6-17 лет, которые представили города Анива, Корсаков, Долинск, Невельск, Холмск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прошли соревнования и показатель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по пхумсэ - формальным комплексам упражнений в тхэквондо. Участники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мастерство выполнения техники, пластику и силу. А капитаны команд соревновались в чок-пах(разбивании предметов). 1-ое место в командном зачете завоевала команда г.Корсакова, 2-ое и 3-е место поделили две команды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восточная гимназия и СОШ №1). Победители и призеры получили кубки и медали.

Александра КОВАЛЕВА, студентка СахГУ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спортивным клубом «Торнадо»

Исследования на тему семьи представили школьники и студенты

19 апреля 2024 г. на базе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прошел конкурс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работ в рамках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го проекта «Открывая безграничные источники знаний».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конкурса выступили Институт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ФГБОУ ВО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и поддерж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г. Владивостоке.

Конкурс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работ собрал на одной площадке педагогов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Кореи, традиционных корейских видов спорта тхэквондо и ссырым,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вои первые шаги в научной и проект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казали ученики МАОУ Гимназия № 2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МАОУ Восточная гимназия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оспитанники МБУДО ДШИ «Этнос»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 ЮСМСОО «Клуб Торнадо», представ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й молодеж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а также студенты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Работы конкурсантов были посвящены следующим темам: культура и семья, искусство и семья, спорт и семья, история и семья, язык и семья.

«Выступления конкурсантов были по-особому ценны для всех присутствующих в зале, так как все работы затронули самые важные и вечные вопросы, в частности, семейные традиции, связь поколений, поддержку родителей, сохранение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диалог культур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 подчеркнула директор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Эльвира Лим.

Открыл конкурс министр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внешних связ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силий Евгеньевич Грудев. Он отметил уникальность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става островного края, возможность изучать Восток именно здесь, в центре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торая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ется и имеет огромный потенциал.

Музыкальным номером поздравили участников конкурса юные воспитанники МАДОУ № 9 «Чебурашка»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 качестве экспертного жюри выступили президент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ак Сун Ок, директор СШОР восточных видов единоборств, президент РОО «Спортивная федерация каратэ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Леонид Ким, президент РОСО «Сахалинская Федерация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ы Ссырым» Алексей Чун, главны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отдела коллекции «Искусство стран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ГБУК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 Хай Ок Дя, директор АНО «Центр чтения» Наталья Петровская.

Призерами конкурса стали:

1 место – И Ю Мин, 8 кл., МАОУ Гимназия № 2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Роль семьи в сохранении национальных традиций и обычаев» (педагог Смирнова А.О.)

2 место – Ким Виктория, Островская Ева, 2 курс ИФИИВ СахГУ, «Корейско-русские семьи: история, стереотипы и традиции» (педагог Корнеева И.В.)

3 место – Абдурахмонова Марахбо, Овчинникова Ксения, 3 курс ИФИИВ СахГУ, «Диалог культур: как язык определяет сознание» (педагог Лим Э.Х.)



тур: как язык определяет сознание» (педагог Лим Э.Х.)

3 место – Со На Ра, 8 кл., МБУДО ДШИ «Этнос»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трунные музыкальные инструменты в корейской традиционной музыке» (педагог Ким Е.С.)

3 место – Кувалдина Елизавета, 7 кл., МАОУ СОШ №5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ддержка семьи – ключ к успеху в спорте» (педагог Ли С.Д.)

Ли Ю На, 7 кл., МАОУ Гимназия № 2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Музыка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нашей семьи» (педагог Смирнова А.О.) – номинация «Лучше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проекта».

Ни Арина, 8 кл., МБУДО ДШИ «Этнос»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скусство каллиграфии в Корею» (педагог Ким Е.С.) – номинация «Научный потенциал».

Сон Хе Ен, РМООСК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РМООСК: просвещение молодежи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едагог О.В.К.) – номинация «Лучшая идея проекта».

Тен Хе Бин, 8 кл., МБУДО ДШИ «Этнос»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ульт предков, как одна из форм политизма в культуре корейцев» (педагог Ким Е.С.) – номинация «Моя семья – моя история».

И Арина, 8 кл., МБУДО ДШИ «Этнос»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циональный менталитет корейцев и его особенности» (педагог Ким Е.С.) – номинация «Лучшая иллюстрация к проекту».

Слабкина Ксения, 7 кл., МАОУ Гимназия № 2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ультура и семья: диалог культур в семейных праздниках России и Кореи» (педагог Шелохаева Л.В.) – номинация «Лучшее творческ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Демидова Варвара, 10 кл., МАОУ Восточная гимназия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зобразительная лексика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педагог Ким Н.В.) – номинация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дебют».

Тен Валерия, 7 кл., МАОУ Гимназия № 2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ультурный код семьи» (педагог Смирнова А.О.) – «Приз зрительских симпатий».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ий проект «Открывая безграничные источники знаний» только набирает обороты в 2024 году. Впереди множество интерес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которые реализуются совместными усилиями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и направлены на формирование кросс-культурной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среды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развитие гармоничных межличностных и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Все мероприятия найдут свое отражение на страницах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 сообщила Эльвира Лим.

Инна КОРНЕЕВА, председатель Ассоциации учителей и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ри РООСК, доцент СахГУ

Анатолий Ким пригласил на открытие своей первой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выставки

Первая персональная выставка картин и графики писателя Анатолия Кима открылась в Выставочном центре Галерея «Сад» Переделкино 21 апреля и продлится по 6 мая. Через своих подписчиков в VK Анатолий Андреевич пригласил на выставку всех желающих и интересующихся его творчеством:

«Когда-то 17-летним я приехал в Москву с Сахалина с головкружительным желанием учиться на художника. Но я был совершенно не подготовлен и не прошёл 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е училище. Поступить удалось только через год, который прожил, работая на стройке штукатуром и плотником. И вот, проучившись благополучно до 4 курса, был внезапно оглушён волею небес, повелевающих мне писать картины мира не красками,

а словами, помещать их не на двухмерной плоскости бумаги и натянутого на подрамник холста, а в четырёхмер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Слова. Не в силах противиться воле свыше, я ушёл добровольно в армию, чтобы испытать судьбу, и прослужил 3 года (тогда в Советской армии служили столько). Вернувшись в Москву, я оставил живопись и ушёл в словесное искусство. Но дал перед небом обет, что когда почувствую, что написал всё, что должен был написать, то снова вернусь к своей первой и горячей любви. И вот лет через сорок почувствовал, что могу снова вернуться к обещанному небу. Моя первая большая выставка живописи и графики есть мой отчёт судьбе. Придите и будьте судьями!».

Источник: <https://t.me/saramkor>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резидент РК намерен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диалог с оппозицией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намерен приложить усилия для налаживания диалога с оппозицией. Об этом он заявил 22 апреля на брифинге, посвящённом назначению нового главы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На вопрос о конкретных изменениях в способе коммуникации и в реализации госполитики Юн Сок Ёль указал на важность донесения до населения посланий в понятной для простого народа форме. Президент отметил, что в прошедшие два года он был больше сосредоточен на проектировании и реализации важных задач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в форме конкретн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шений. Теперь же, когда направления и механизмы работы определены, настало время для более тесной работы с населением, – добавил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Он заявил, что в реализации политики будет прилагать усилия для диалога с оппозицией. Говоря о повестке проанонсированной встречи с председателем крупнейшей оппозицион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Ли Чжэ Мён, президент сказал, что пригласил главу оппозиции по большей част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выслушать последнего. Также он указал на то, что в ходе встречи будут затронуты вопрос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целях стабилизации положения граждан. По его словам, повестка встречи не ограничена.

Администрацию президента РК возглавил Чон Чжин Сок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назначил новым главой свое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депутата от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Чон Чжин Сока. Об этом было объявлено 22 апреля. Президент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новый глав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будет выполнять свои обязанности, поддерживая открытый диалог не только с руководством, но также с кабинетом министров, правящей и оппозиционной партиями, СМИ и гражданским обществом. Данное назначение произошло через 11 дней после того, как предыдущий глав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Ли Гван Соп изъявил желание покинуть должность в связи с результатами недавних парламентских выборов. Между тем, Чон Чжин Сок имеет внушительный опыт в политике и обширные связи. В прошлом он занимал должности заместителя спикера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главного секретаря по политическим вопросам пр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главы фракции партии «Сэнур», впоследствии изменившей название на «Сила народа». Сам Чон Чжин Сок заявил, что считает своим долгом оказать всемерную поддержку президенту Юн Сок Ёлю и правительству в непростой ситуации значительного перевеса в парламенте депутатов от оппозиции.

В Сеуле собрались эксперты по стандартизации ИИ

Эксперты со всего мира, в том числ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рупных компаний, занятых в сфер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ИИ), таких как Microsoft и Nvidia, собрались в Сеуле, чтобы обсудить стандартизацию ИИ. Министерство торговл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энергетики РК совместно с Корейским агентством по технологиям и стандартам (KATS) сообщили 22 апреля, что заседан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технического комитета по стандартизаци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ISO/IEC JTC1/SC42) проводится в форматах офлайн и онлайн с 22 по 26 апреля в здании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ой палаты в Сеуле. Это мероприятие организовано совместно Международ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по стандартизации (ISO) и Международной электротехнической комиссией (IEC). Комитет был создан в 2017 году. Сегодня в его работе участвуют 700 экспертов из 64 стран. Они формируют руководство по деятельности других комитетов, занимающихся отраслевыми стандартам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затрагивающими такие направления, как беспилотные транспортные средства, робот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и финансы. В состав комитета входят пять рабочих групп и четыре совместные рабочие группы, которые занимаются вопросами качества данных и надежности систем ИИ. На этом мероприятии пройдут дискуссии о разработк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тандартов, в том числе по этическим вопросам, связанным с генеративным ИИ, и руководством по его системам управления.

В Сеуле проводится конференция глав зарубежных дип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 РК

С 22 по 26 апреля в Сеуле проходит ежег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глав зарубежных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 РК.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182 посла, генеральных консулов и других глав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миссий в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ах собрались, чтобы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и. Участники конференции будут обсуждать направления южнокорейской дипломатии на фоне обостряющегося соперничества между США и Китаем, растущей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ядерной угрозы и ситуации в Украине и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Также в повестке вопросы реализации приоритетных задач, выдвинутых на этот год министерством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Это ведение «дипломатии надёж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обеспечение интересов экономики и граждан страны, а также ведение активной многосторонней дипломати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статусу одной из ключевых стран мира.

RKI

У аграриев Пхеньяна и Москвы есть общая тема

Москва, 22 апреля – ИА РУСКОР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й чиновник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отправился в поездку в Россию, сообщили в воскресень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СМИ Пхеньяна, на фоне хронической нехватки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на Севере.

По сообщению Центрального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агентства Кореи, делегац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комиссии по сельскому хозяйству во главе с председателем Ли Чол Маном, который одновременно является вице-премьером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вылетела в Россию в субботу. В информации в Facebook посольство России в Пхеньяне сообщило, что Ли планирует провести переговоры с министром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России Дмитрием Патрушевым и встретиться с другими российскими чиновникам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рыболовства во время своей поездки. Ли также посетит Немчиновский федеральный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центр, который специализируется на исследованиях зерна, и Россий-

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грар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сообщили в посольстве, отметив, что график делегации, как ожидается, будет «очень напряженным».

Поездка происходит на фоне углубления связей Севера с Россией после редкого саммита между их лидерам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и в сент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что вызвало слухи о том, что обе стороны могут провести переговоры о возможной российской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е Севера, который уже давно борется с нехваткой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В 2022 году Север преобразовал св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комиссию, очевидно, пытаясь сделать приоритетным развитие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на фоне продолжающихся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х проблем.

Это очередная поездк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делегации в Россию: на этой недел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инистерства лесного хозяйства покидают Пхеньян для переговоров о двусторонне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За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нужно платить по прейскуранту

Сеул, 21 апреля – ИА РУСКОР

Согласно отчету глобальной консалтинговой фирмы Mercer,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еул был 16-м по дороговизне городом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Что касается общего качества жизни, Сеул занял 81-е место из 241 города.

Ежегодный рейтинг стоимости жизни Mercer, основанный на опросе экспатриантов по всему миру, показал, что стоимость жизни в Сеуле была дороже, чем в Лондоне и Токио, которые заняли 17-е и 19-е места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Совокупная стоимость жизни в Сеуле, включая жилье, транспорт,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и одежду, за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резко возросла, превысив аналогичный показатель во многих городах мира. Например, что Токио занимал третье место, а Сеул был 11-м в списке в 2020 году, но снижение курса иены в сочетании с относительным повышением цен в Сеуле за короткий трехлетний период поставило Сеул выше Токио. Гонконг возглавил список самых дорогих городов, за ним следует Сингапур. «Два самых дорогих города для проживания международных граждан расположены в Азии», – сказали в Mercer. Четыре города в первой десятке рейтинга оказались в Швейцарии. Нью-Йорк занял шестое место, за ним следует Копенгаген на девятом месте. Лос-Анджелес (11-е), Шанхай (12-е)

и Пекин (13-е) последовали его примеру. Находясь на 16-м месте, Сеул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самых дорогих городов, учитывая, что города, занимающие более высокие позиции в списке, такие как Гонконг, Сингапур, Нью-Йорк и Копенгаген, всегда славились высокой стоимостью жизни. Сеул превосходит Токио (19-е место), Лондон (17-е), Дубай (18-е), Бостон (21-е), Чикаго (24-е), Вену (25-е), Хельсинки (34-е) и Париж (35-е) по расходам на проживание.

Компания Mercer также опубликовала индекс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который оценивает города на основе условий жизни иностранных сотрудников и их семей, работающих за границей. Сеул занял 81-е место из 241 города. Mercer объясняет, что в рейтинге учитываются различные факторы, включая стоимость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товаров, эконом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табильность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й, доступ к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ю, политический и социальный климат, общественные услуги и транспорт, отдых, социальные и культурные удобства и природную среду.

«Стоимость – не единственный фактор, влияющий на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ь местоположения для сотрудников и корпораций: не менее важным фактором является общее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которое предлагает город», – заявили в Mercer.

Оцифруют даже раритеты 13 века

Сеул, 22 апреля – ИА РУСКОР

Трипитака Кореана, наиболее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буддийских текстов, законов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договоров, вырезанных на 81 258 деревянных печатных блоках 13 века, будет оцифровано для всеобщего обозрения к 2027 году, сообщает Управление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СНА).

Агентство сделает отпечатки деревянных блоков, хранящихся в храме Хэинса в провинции Южная Кенсан, на ханджи, традиционной корейской бумаге из шелковицы, и отсканирует страницы. Общественность сможет получить доступ к цифровым файлам уже в 2027 году.

«Проект начался в прошлом году, и в этом году мы займемся изучением деревянных блоков и способов их наилучшего сохранения», – сообщил о планах официаль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СНА, занимающийся проектом. «Начиная со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будем придумывать, как можем представить наши усилия по оцифровке и создать наилучшие условия для использования наследия», – добавил чиновник, имея в виду деревянные блоки, внесенные в список ЮНЕСКО, и Хэинса, буддийский храм, основанный в 802 году. Храм, который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риступил к проекту в качестве ведущего менеджера, привлечет экспертов по управлению культурным наследием, в том числе из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Буддийские ученые всего мира признают выдающееся качество деревянных блоков буддийских писаний. «Память о всемирном наследии ЮНЕСКО» также дает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 развитии корейских методов печат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отвергло требование врачей об отмене плана медицинской реформы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не будет рассматривать требование медицин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об отказе от плана по увеличению приема абитуриентов в медвузы. Об этом заяви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РК Чо Гю Хон, выступая 22 апреля на совещании в Сеуле. Дискуссии об отказе от плана медицинской реформы или её откладывании на один год «не совпадают с точкой зрения народа», – сказал Чо Гю Хон, призвав врачей выступить с «единым предложением, основанным на научных доводах». Он также сообщил, что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заявило о принятии просьбы ректоров шести госуниверситетов о применении более гибкого подхода в расширении квоты на приём студентов в медвузы в рамках поиска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затянувшейся забастовки врачей-интернов. Министр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медицинское сообщество примет усил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 разрешению ситуации, призвав вышедших на забастовку врачей вернуться в свои больницы. Чо Гю Хон также призвал организации врачей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деятельности специального президентского комитета по медицинской реформе, который должен начать работу на этой неделе. Ранее Корейская медицин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и 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интернов и ординаторов пообещали бойкотировать эту инициативу. **KBS World**

COVID-19 переводится в разряд эндемических заболеваний

С 1 мая COVID-19 перейдёт в РК в разряд эндемических заболеваний, поскольку уровень опасности будет понижен со второго «тревога» до самого низкого «обеспокоенность». Таким образом, спустя четыре года после вспышки инфекции страна полностью вернётся к допандемической стадии. Как сообщили в центральном штабе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стихийным бедствиям и катастрофам, нынешняя эпидем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стабильна, с низким уровнем смертности и отсутствием опасных вариантов заболевания. Будут отменены все оставшиеся карантинные меры, такие как ношение масок в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и пятидневный каранти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больше не будет покрывать расходы на тестирование на COVID-19, госпитализацию тяжёлых пациентов и медикаментозное лечение заболевших. Вакцинация против коронавируса будет бесплатной только для групп высокого риска, то есть, для людей в возрасте старше 65 лет и с ослабленным иммунитетом. **KBS World**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в 2024 году предлагают провести с 1 по 9 мая в разных форматах

Центральный штаб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гражданско-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движения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России» принял решение не проводить традиционное шествие «Бессмертного полка» в очном формате в связи с существующими угрозами обще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Почтить память героев своей семьи каждый из нас сможет другими способами, и не только 9 мая, а уже начиная с 1 мая - в период перед празднованием Дня Победы.

— Ещё раз хочу подчеркнуть значение этого замечательного праздника - память о защитниках Отечества всегда живет в наших сердцах. Каждая семья ждет этого дня, это всенародный праздник. Хочу напомнить, что 2024 год объявлен «Годом семьи». Мы рассчитываем, что в каждой акции, о которой мы рассказываем, будут принимать участие именно семьи, поскольку это народная память, и именно она формирует общую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и историческую память в целом. Возможно, вас расстроила новость о том, что шествия не будет, однако наша страна переживала разные трудности, и я уверена, несмотря на ограничения, это не мешает нам помнить и отпраздновать День Победы, — сообщила Сопредседатель Центрального штаба Бессмертного полка России, депута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Елена Цунаева.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Бессмертном полку» в этом году можно и на работе, и в общественном или служебном транспорте, и на воде, и в воздухе. Выступление Елены Цунаевой было посвящено многообразию форматов, с помощью которых можно почтить память героев своих семей. Один из таких форматов - «Галереи памяти»: на центральных улицах и площадях российских городов будут размещены портреты героев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и участнико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 уроженцев этого региона.

Новые форматы проведения «Бессмертного полка» пройдут и за рубежом наряду с традиционным шествием. По словам Елены Цунаевой,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уже есть подтверждение, что торжествен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состоятся в 78 городах 49 стран мира на всех континентах.

Елена Цунаева также отметила, что сегодня важно не только помнить героев прошлого, но и чтить героев настоящего, которые защищают рубежи нашей родины в зоне СВО. И не случайно одним из форматов в этом году станет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на передовой»: участник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вспомнят своих родных, воевавших с нацизмом в год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запишут видеопоздравления своим родителям, детям, братьям и сестрам, которые их ждут и верят в победу.

Министр просвещ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ергей Кравцов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практически во всех семьях в нашей стране хранят историю о своих ветеранах. По его мнению, родителям необходимо начинать вовлекать детей в тему сохранения семейной истории с самого раннего возраста, что не отменяет важности воспитательного процесса в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 школах и детских садах.

Министр напомнил, что теперь перед началом каждой учебной недели в школе звучит гимн нашей страны, и поднимается флаг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а в этом году к праздничным мероприятиям всем предлагается подготовить копию Знамени Победы.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с 1 мая по 12 мая пройдет акция «Стена памяти». В эти дни важно дать слово самим детям, чтобы они могли рассказать сверстникам о подвигах своих героев. В школах такие «Стены памяти» останутся до конца учебного года.

Руководитель Исполкома «Бессмертного полка России» Наталья Шадрина, отметила, что среди предложенных форматов значительную часть составляют те, что были востребованы в прошлом году, и предложила проводить подобные акции не только в День Победы.

— В этом году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пройдет с 1 по 12 мая, и это даст возможность каждому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любом удобном формате. Один из самых любимых — «Портрет героя на одежде». Это можно сделать каждому: появилась хорошая традиция делать футболки и в них выходить целыми семьями на прогулки, многие бережно их хранят с прошлого года. Кроме того, чтобы красиво оформить фотографию, можно зайти на сайт polkrf.ru и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конструктором - подобрать фон, вписать данные героев, отметить, что ветеран был тружеником тыла или партизаном.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и мессенджерах важно делиться историями, которые рассказывали ветераны. Может быть у вас есть фотографии или другие семейные реликвии, связанные с вашими героями. На сайте Бессмертного полка России размещено множество таких рассказов, они обычно хранятся в семьях. Когда их читаешь, возникает чувство гордости за наш народ, за нашу Победу. Если вы знаете истории, которые рассказывали ваши дедушки или бабушки — делитесь ими, он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уникальны. Покажите, что вы любите своих героев и гордитесь ими, — сказала Наталья Шадрина.

Отдельно она остановилась на цифровых форматах. Всех пользователей социальных сетей в День Победы призывают заменить свои аватары на портреты участнико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тружеников тыла или участнико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и написать посты о своих героях с хэштегом #нашБессмертныйполк.

Кроме того, было рассказано о том, как любой пользователь может сделать штендер с фотографией ветера-

на на сайте Бессмертного полка России. Также Наталья Шадрина сообщила, что в День Победы по всей стране пройдут трансляции портретов ветеранов. Основная трансляция будет вестись на сайте Бессмертного полка России polkrf.ru, а также на странице Движения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Ролики с портретами участнико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также можно будет увидеть на медиафасадах и светодиодных экранах городов, на местных телеканалах и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на личном транспорте, авто- и мотопробеги «Бессмертного полка» - еще один из любимых форматов. Для этого необходимо распечатать и разместить портрет на заднем боковом стекле с левой стороны своего автомобиля. Главное условие — фото не должно мешать обзору водителя.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возможностях рассказала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директор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Волонтеры Победы» Анастасия Рябова. Например, в этом году с помощью чат-бота можно оформить фотографию героя своей семьи:

— 1 мая «Волонтеры Победы» в специальном чат-боте в телеграме запустят возможность создать памятную аватарку для социальных сетей. Демонстрация такого единения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еще раз подчеркнет нашу историческую память, гордость за своих героев. Хочется отметить, что у этой функции также буд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менить специально разработанные рамки или разместить фотографию в качестве поздравительной открытки. Как можно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этими опциями, мы расскажем в профиле нашего Движения и на сайте Бессмертного полка России», — отметила Анастасия Рябова.

Отдельно она остановилась на акции «Стена памяти». Волонтеры выступают с инициативой провести ее на предприятиях и в организациях по всей стране, чтобы каждый россиянин мог закрепить портрет своего ветерана на «Стене памяти», созданной коллективом в рабочем пространстве своего учреждения в период с 1 по 12 мая. При этом участниками всероссийской акции «Стена памяти» могут стать как родственники сотрудников предприятия, так и те, кто трудился на нем в годы войны, и их коллеги.

О всех способах размещения материалов акции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организациях, на предприятиях, в общественных местах и на транспорте, а также о рекомендациях для регионов можно узнать из презентации по ссылке <https://disk.yandex.ru/d/q7gmvpkXev8CtQ>.

Пол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м, как в этом году можно почтить память своих героев, доступна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Бессмертного полка России <https://polkrf.ru>.

Грузы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начнут доставлять по Северному морскому пути уже в этом году

Запускается альтернативный путь доставки в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грузов, необходимых для развития строительной отрасли, ЖКХ,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других жизненно важных сфер. Транспортная линия по Северному морскому пути будет быстрее и экономичнее.

Вопрос развития нового логистическ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подня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заседании совета п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С этого года морской порт Корсаков включен в маршрут первого субсидируемого каботажного рейса по Северному морскому пути. Пилотный рейс из Архангельска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запланирован в июле — августе. Заход в Корсаков ожидается 10 августа.

— Северный морской путь — это самый выгодный путь по морю сегодня. Прежде всего, за счет его субсидирования со стороны федерального центра. Если он заработает так, как мы рассчитываем, это будет мощная козырная карта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ервый шаг будет сделан уже в этом году. СМП воз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для развития нефтегазовых проектов, можно будет завозить в несколько раз больше грузов для их работы и обслуживания. Бизнесу, который заинтересован в доставке по альтернативному маршруту, будем оказывать всяческую поддержку,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егодня основной путь завоза грузов в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роходит по железной дороге. Из Москвы по Транссибирской магистрали и далее по паромной переправе Ванино — Холмск или по линии Владивосток — Корсаков. Доставка занимает около 48 дней.

— Маршрут по морю — по Северному морскому пути — по протяженности больше, но при этом завоз грузов происходит значительно быстрее. Примерно за 28 дней. Важна также и экономическая составляющая. Перевозка одного контейнера по Севморпути в несколько раз дешевле, чем по традиционному маршруту, — сообщил министр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аксим Жоголев.

Пилотный рейс по альтернативному пути будет субсидирован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Сегодня формируется грузовая база, и сахалински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приглашаю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этой работе. С проектом типового договора на перевозку грузов мож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на сайте перевозчика: <http://www.rosatomflot.ru/uslugi/uslugi-po-perevozke-gruzov%20-na-bortu-av-sevmorput/>. За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информацией можно обращаться в Минвосток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D.Solomatin@minvr.gov.ru) и в госкорпорацию «Росатом» (SeNChemko@rosatom.ru).

Вопросы логистики находятся на постоянном контроле региональных властей. Обращени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обрабатываются в индивидуальном порядке совместно с

Министерством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РЖД и транспортными компаниями. Так, в этом году было положительно решено более 550 вопросов по завозу грузов на острова.

Отметим,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назвал Северный морской путь ключом к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поставил задачу — сделать его по-настоящему глобальной, конкурентной транспортной артерией. К 2025 году его грузопоток должен вырасти в десять раз.

Инженерная школа, экономика океана, новая энергетика: власти и бизнес определили будущее СахалинТех

На протяжении трех дне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ходила сессия «Кампус СахалинТех как драйвер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а и университета». Федеральные и региональные власти, ученые, промышленные партнеры формировали векторы развития кампуса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Работа проходила в группах, посвященных передовой инженерной школе, управлению регионом и международ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экономике Мирового океана и водородной энергетике.

— Соврем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необходим нашему региону, и мы получили поддержку Президента и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этом вопрос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центра и студенческого городк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егодня идет опережающими темпами. Но мы строим не только стены, а реформируем образовательную и научную базу. Наша молодежь будет получать самые актуальные знания и навыки бок о бок с производством, и, получив диплом, сможет без проблем занять лучшие рабочие места на ведущих предприятиях, — подчеркну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сессии, посвященной СахалинТех,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министр науки и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алерий Фальков, указав н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ре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в короткие сроки и планомерного развития в течение 5–10 лет.

— В нашей группе мы обсуждали проект Школы управления регионом СахалинТех, его настоящее, и каким этот проект мы видим через 2–3 года, — рассказала кандидат экономических наук Валерия Шичалина. — Нам было важно понять, как мы можем трансформировать проект и совместно с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егиона вывести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й уровень — в страны СНГ и АТР.

Сахалинская школа управления регионом уже является инструментом для экспорта знаний и практик в другие регионы России и страны. Проект служит инструментом позиционир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ниверситета и нового кампуса в мировой повестке. На острова приезжают учиться региональные министры и мэры, которые потом транслируют уникальные сахалинские разработки в области управления.

На треке «Водородная энергетика.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партнерами» ученые и бизнес обсуждали широкий круг вопросов — от подготовки кадров до интеграции технологи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базе СКБ САМИ, создана базовая площадка Центра водородного инжиниринга с опытным полигоном для апробации водород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Успешны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е решения будут масштабированы и тиражированы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и за рубежом. В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участвуют Минобрнауки, Минпромторг,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МФТИ и МГУ имени Бауман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должна в течение 10 лет стать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м центром по водородным технологиям. Эта многогранная отрасль состоит из многих слоев — рынок и продук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и разработки, кадры, образование, подготовка, переподготовка инженеров и техничес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Всю эту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планируется развернуть в регионе, что воспринимается как определенный вызов для кампуса СахалинТех.

Итог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сессии подвел глава СахГУ Александр Самардак. Он отметил, что третья сессия стала во многом ключевой, поскольку все стороны начали формировать одну общую картину будущего кампуса. Вырабатываются механизмы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 промышленными партнерами и понимание, как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процесс будет встраиваться в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Отдельная роль в этом процессе отдается студентам, которые проходят свой научный путь через лаборатории и научные центры.

— Мы обсуждали и проектировали будущее наше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будущий образ, определяли, по как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университет станет двигаться дальше, как мы будем к этому образу идти. На мой взгляд, работа была очень плодотворная, и в последний день группы показали результат, который от нас ожидали эксперты, — подытожи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ректора.

Так, по итогам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сессий совместно с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егиона и промышленными партнерами спроектирована 21 лаборатория в нефтегазовом промышленном парке, 2 лаборатории в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ом парке и 11 лабораторий в СКБ САМИ, где будет расположен первый в России водородный полигон.

Напомним, строительство кампуса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СахалинТех ведется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Наука и университеты»,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 한인 학살' 소재 그림책 작가 "아픔 공감할 수 있길"

10여년 전 3개월 거주한 아동문학가 장경선, '그 여름의 사할린' 출간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러시아 남부 사할린은 일제강점기에 많은 한국인이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곳입니다. 아이들이 슬픈 역사를 이해하고, 그 아픔에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 있죠."

사할린 한인 학살사건을 소재로 한 그림책 '그 여름의 사할린'(작은 숲)을 15일 출간한 아동문학가 장경선(48) 작가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무거운 주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내고자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한 후 사할린의 군경과 자경단 등은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킬지 모른다며 무차별 살해했다.

당시 소련군의 재판기록을 통해 밝혀진 바로는 카미시카, 시스카, 에스토루, 미즈호 등에서 희생자가 나왔다. 장 작가가 그림책의 배경으

로 한 사건은 약 35명의 한국인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진 미즈호(현 포자르스코예) 마을이다.

장 작가는 2013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학 분야 해외 창작거점 예술가과견사업'에 선정돼 3개월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거주하면서 사할린 한인사를 연구했다.

일제강점기 등 근현대사를 소재로 한 글을 주로 써온 그는 사할린 동포 2세인 박승의 전 러시아 사할린국립대 한국어과 교수의 자택에 머물면서 사할린 곳곳을 답사하고 한인들을 인터뷰하면서 학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고자 노력했다.

그는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5년 3월 펴낸 동화집 '나는 까마귀였다'에서 미즈호 마을 학살 사건을 소재로 한 '나는 까마귀였다'와 '전채련 할머니의 눈물' 등 두 편의 이야기를 선보였다.

이번에 출간한 그림책은 이 동화집 내용 일부를 뽑아 다듬고 정리한 것이다. 2018년에는 강제징용된 오빠를 따라 사할린으로 이주한 명자의 이야기를 다룬 그림책 '안녕, 명자'를 펴낸 바 있다.

장 작가는 "사할린을 소재로 하는 작품은 대부분 강제징용의 애환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며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등 학살을 주로 다룬 입장에서 민간인 학살에 중점을 두다 보니 미즈호 마을에 관심을 두게 됐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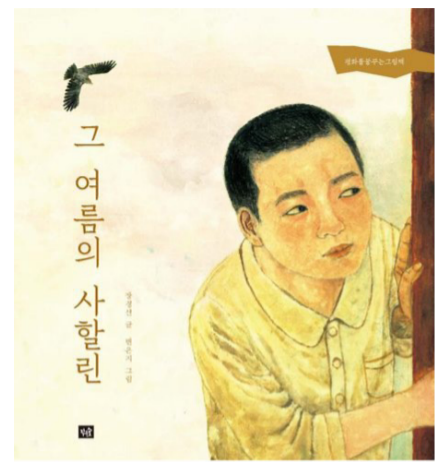
그러면서 "미즈호 마을은 조선인과 일본인이 서로 결혼할 만큼 한 가족처럼 오순도순 정답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한다"며 "아픈 역사는 철저히 묻혔기 때문에 다시 짚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즈호 마을의 두 친구인 일본인 소년 마쓰야마와 조선인 소녀 하나가 등장하는 이번 책에서 가



해자인 일본인이 무릎을 꿇는 장면을 설정했다. 장 작가는 책으로나마 일본이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한다.

그는 "사할린 남쪽 코르사코프의 '망향의 언덕'에는 조각배 모양의 위령탑이 있다. 붙어 있지 않고 갈라진 배가 그날의 아픔을 말해 준다"며 "다행히 1990년 한러 수교 이후 마침



내 사할린 한인들은 고향 땅을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할린 수도 유즈노사할린스크는 아름다운 도시다. 최소한의 개발을 추구해 자연 속에 집과 건물을 만들었다"며 "척박한 땅을 풍요롭게 만든 건 우리 민족이었다. 사할린 한인들은 러시아인들과 어깨를 당당히 하고 산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 올해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 안건 심의

5대 정책목표 89개 세부과제
18일 재외동포정책실무위 열어 논의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18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 17층에서 제33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회의를 열어 2024년 재외동포정책을 뒷받침할 시행계획 안건을 심의했다.

실무위원회는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위원장 외교부장관)에 상정할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체로, 지난해 신규 제정된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정부위원과 13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이기철 청장은 회의에서 "기본계획에 따라 최초로 성안되는 올해 시행계획은 향후 마련되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기준점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하면서 "재외동포청 개청 1주년이 다가오는 만큼 재외동포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행계획에 따른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청장은 "재외동포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외국 교과서내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 수록 사업은 ①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함께 ② 거주국내 지위향상이라는 재외동포정책 핵심목표 2개를 동시에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③ 한류문화 확산 기여 그리고 ④ 자체적인 브랜드가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1석 4조의 핵심적인 사업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단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4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은 지난 1월 확정된 5개년 중장기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년)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실행과 이행력 제고를 위해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5대 정책목표(▲재외동포정책 강화체계 확립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국력에 걸맞는 동포 보호·지원 강화 ▲한인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기여)에 맞춰 총 17개 중앙행정기관의 89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과 거주국 지위향상을 위해 한국 정치·경제 발전상 알리기 등에 집중 투자하고, 국내동포 증가에 대응한 종합적 지원 시스템 구축과 재외동포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동포사회와 연계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청년 일자리 지원 등 범 정부 차원의 민생경제 회복 노력에 부응하고 따뜻하게 보듬는 민생우선 정책 시현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재외동포청 출범에 따른 동포사회 기대에 부응해 관련 정책 콘텐츠를 마련하고 정부간 협업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가시적인 성과 달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재외동포실무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시행계획은 추후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재외동포청은 전세계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이자, 재외동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재외동포 사회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제공)

재외동포청, 지자체 대상 재외동포 정책설명회 개최

국내동포 정착지원 등 상호 협력방안 논의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4.19.(금) 인천 송도 재외동포청에서 국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외동포 정책설명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들과 인천, 경기 등 9개 광역단체, 제천 등 10개 기초단체 동포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국내 체류 동포 증가 등에 따른 새로운 정책 수요에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동포청과 지방정부 간 협력 채널 구축을 통해 보다 다각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 재외동포청은 주요 재외동포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의 상생 발전을 위해 동포청과 지자체가 협업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대한 참석 지자체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인구감소 문제 극복 및 생산인

구 확보를 위해 시에서 추진 중인 고려인 동포 이주 정착 지원사업 사례를 소개하면서, 국내동포들의 한국어 능력 함양 등의 분야에서 동포청이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 관계자들은 금번 회의가 작년 출범한 재외동포청의 업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지자체별 소관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작년 6월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재외동포청과 국내 동포 민생현장의 접점에 있는 지자체가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동포지원 대책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재외동포청은 앞으로 중앙·지방 정부 간 긴밀히 협력하여 재외동포들의 국내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제공)

국내 계좌없는 재외동포도 어디서나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재외동포청·금융결제원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 실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과 박종석 금융결제원장은 국내 계좌가 없는 재외국민도 국내 디지털 공공·금융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 4.23.(화) 서울 종로구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디지털 인증·증명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서비스는 동포청이 추진하는 '디지털 영사 민원 시스템 구축 사업(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 해외 체류 재외국민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인증 수단인 국내 휴대전화 또는 국내 계좌가 필요했으나,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국내 휴대전화나 국내 계좌가 없는 재외국민도 재외공관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재외국민도 국내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를 받게 됐다.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는 2024년 3월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으며, 4월 중 재외공관 실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서비스 시범운영 테스트를 거쳐, 5월부터 정식 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재외국민은 가까운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권(은행, 증권, 카드, 보험, 저축 등), △정부·공공(정부24, 홈택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 △미디어 등을 이전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 외에도 양 기관은 향후 디지털 영사확인 등 공공·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종이 문서를 전자화하는 '디지털 증명서비스'등을 발굴·협력해 재외동포의 비대면 공공·금융서비스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협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우리 재외국민은 이번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를 받게 됐다"며 "그간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소외됐던 재외국민이 조금 더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재외동포청은 디지털 영사 민원 서비스 확대로 재외동포 지원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쿠나쉬르섬에 기록적으로 많은 백조 날아들어

쿠나쉬르섬에 날아든 백조의 수가 기록적이었다고 '쿠릴 스크' 보호구역 측이 전했다. 남 쿠릴 지역들에서 백조의 무리가 지난해 수치보다 10배나 많은 총 5천 마리 이상이 관측되었다. 보호구역의 전문가들이 기록한 가장 큰 백조의 무리는 215마리로 이뤄져 있었다. 보호구역 측은 "쿠나쉬르에는 3 종류의 백조를 볼 수 있는데 매해 겨울에 날아오는 큰백조와 여름을 나기 위해 찾아오는 작은백조(Cygnus columbianus), 미국 백조(Cygnus columbianus)가 있다. 이 3종은 모두 희귀종으로 사할린주 수렵 금지목록에 올라있으며, 작은백조는 지금도 러시아 연방 수렵금지 목록에 올라있다. 이러한 종은 철새 야생동물보호에 대한 본 협약의 목록에도 등재돼 있다."고 전했다.

가장 자주 보는 큰백조는 봄에 웨슬롭스키반도 해안 인근에서 215마리가 관측됐고, 1월 18일에는 쉬코탄섬에서 35마리가 눈에 띄었다.

На Кунашир прилетело рекордное количество лебедей

На Кунашире зафиксировали рекордное количество лебедей.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заповедника «Курильский».

Всего на южных Курилах насчитали свыше 5000 особей, что в 10 раз превышает статистику прошлых лет. Наибольше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ое специалистами заповедника скопление лебедей состояло из 215 особей.

«На Кунашире можно встретить три вида лебедей – ежегодно прилетающего на зимовку лебедя-кликун, а также залетные виды – малого лебедя (Cygnus columbianus) и американского лебедя (Cygnus columbianus). Все три вида редкие и внесены в Красную книг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 малый лебедь - еще и в Красную книгу РФ. Также эти виды внесены в Приложение Боннской конвенции об охране мигрирующих видов диких животных», – добавили в заповеднике. Чаще всего встречается лебедь-кликун. Весной 215 особей насчитали недалеко от побережья полуострова Весловского, а 18 января на Шикотане были замечены 35 птиц.

유럽 수상 종목 선수권대회 다관왕, 사할린의 차세대 훈련시켜

수상 종목 유럽 선수권대회 다관왕인 이고리 하리토노브 선수가 사할린의 차세대 훈련을 위한 수구 종목을 지도한다고 사할린주 정부 홍보부가 전했다.

2024년 사할린 지역에 수상 종목 스포츠센터가 운영을 시작한다.

현대식 스포츠 시설은 극동 및 시베리아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이곳에서 다이빙, 수중 발레, 수구 등 새로운 종목을 배울 수 있게 된다

수구 종목 훈련을 위한 사할린의 차세대 선수 선발이 시작되어 이고리 하리토노브가 초빙돼 이들을 훈련시키게 되었다. 그는 유럽 선수권대회 다관왕이자 국제 스포츠 장인, 터키와 카자흐스탄의 대표팀 선수로 활약, 터키 '갈라타사라이' 클럽 대표팀 선수, 터키 남자 국가대표팀 2차 코치 경력을 갖고 있다.

하리토노브 코치는 "저는 튀르키예(터키)에서 27년간 살았는데 얼마 전부터 러시아가 그리웠다. 러시아 연방 수구연맹으로부터 사할린에 일해볼 것을 제안해서 나에게 다시 열정이 타올랐다. 이전에 한 번도 사할린에 와본 적은 없다. 사할린주에 새로운 스포츠 종목들의 구축과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싶다는 큰 열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수구 종목은 수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수구 선수들은 물속에서 수직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수구는 계속

공을 잡고 던지는 팀 경기다.

수구에 유년들 (7세 -10세)도 참가할 수 있는데 1년간 학생들은 다양한 유형의 수영을 연마한 다음에야 세부 종목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будет тренировать многократный чемпион Европы

Тренировки по водному поло для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 многократный чемпион Европы Игорь Харитонов.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2024 году на острове начнет работать Центр водных видов спорта. Современный спортивный объект станет самым крупным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 Сибири. Благодаря ему в области можно будет заниматься новыми видами спорта – прыжками в воду, синхронным плаванием и водном поло.

По последнему виду уже стартовал набор юных спортсменов, которых будет тренировать приглашенный тренер Игорь Харитонов – многократный чемпион Европы, мастер спорта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ласса, игрок сборных команд Турции и Казахстана, а также клуба «Галатасарай» (Турция), второй тренер мужской сборной команды Турции.

«Я 27 лет прожил в Турции, и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назад мы с супругой поняли, что скучаем по России. Когда Все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водного поло предложила работать на Сахалине, я загорелся этим! Никогда ранее здесь не бывал, но у меня есть огромное желание приложить все свои навыки, чтобы построить и развить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вое спортив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 поделился Харитонов.

База водного поло – плавание. Спортсменам нужно хорошо держаться на воде в вертикальном положении, не касаясь дна. Это командная игра, в которой постоянно есть борьба, захваты и удары. Попробовать себя в виде спорта можно и мальчикам, и девочкам в возрасте от 7 до 10 лет. В первый год школьники будут оттачивать различные стили плавания, а затем – знакомиться с тонкостями игры.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Началась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24 года!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6 месяцев — 646 руб. 9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Бонус редактиру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 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야</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